

국내 최초 및 최대 플라스틱 상자 생산 직원단합과 우수한 품질로 경쟁력 강화

최근 제품의 생산에만 중심을 두어왔던 업계마다 포장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서 각종 포장재와 포장디자인 등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IMF라는 암담한 현실을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수출증진으로 헤쳐나가고자 하는 요즘, 단가가 저렴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포장이 쓰레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어오고, 특히 플라스틱류의 경우 재활용 및 재사용, 그리고 폐기시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분해성 플라스틱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이 이어

지며 그 난제를 극복해가고 있다.

1970년 8월 설립되어 72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한국단프라에이스(주)는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상자의 본격적인 생산가동체제를 열었다는 의미를 지닌 업체로 농수산물, 가전제품, 자동차 등 여러 분야의 포장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상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스티로폼 상자와 골판지 상자 등과 함께 이 분야의 전문적인 포장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플라스틱 상자의 경우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홍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이태조 이사는 플라



▲ 한국단프라에이스(주) 공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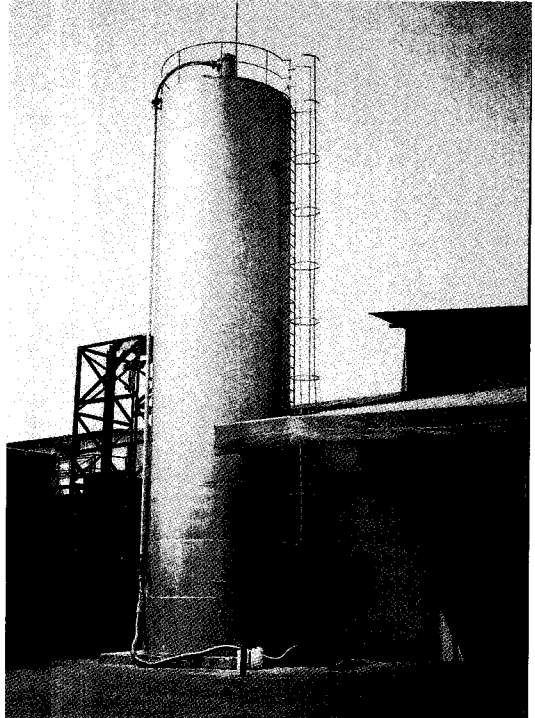
스틱 상자에 대한 자부심과 기술력을 가지고 이 분야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총 인원이 46명 정도인 한국단프라에이스(주)는 동 업계에서 기계 한대 대비 두명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비해 기계 네대당 두명의 인원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이는 업계 최초로 전 생산라인시스템을 자동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한국단프라에이스(주)의 자동화라인은 우선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50톤 분량의 원료탱크로리에서부터 시작된다. 탱크로리에서 잘 배합된 원료가 원료공급 파이프를 따라 기계로 자동투입되면 각 라인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원료와 색소의 비율을 맞추고 이 원료들이 제품성형기로 공급되어 플라스틱 원판이 만들어지면 2명의 인원이 배치된 프레스기로 옮겨져 성형에 맞게 절단과정을 거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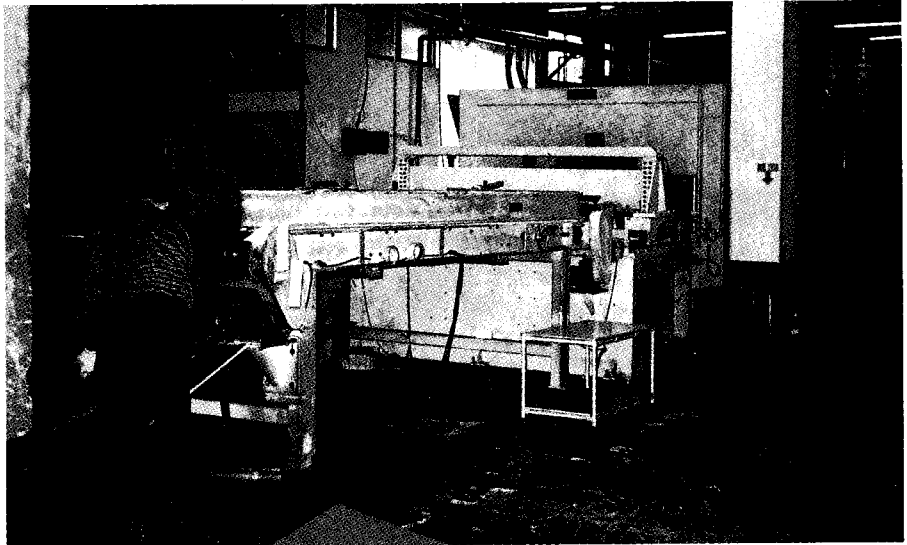
여기서 성형에 맞게 절단되고 남은 나머지 조각 제품들은 분쇄기에 넣어져 새로운 제품원료로 재생되게 되는데 이러한 공정 역시 한국단프라에이스(주)만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플라스틱 상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플라스틱 상자가 완성되는 최종과정인 가공공정에서는 유저 측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양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는 압출성형박스만의 특징이다.

한편, 한국단프라에이스(주)에서는 상자 외부에 인쇄하는 공정까지 갖추고 있어 자체적인 완제품 생산이 가능해 유저 측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단기납품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 국내 유일의 자동 원료 배합기

플라스틱 상자를 통해 포장업계에 몸담게 된 후 가장 안타깝게 느껴온 점이 포장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고 말하는 이 이사는 “외국의 경우 제품생산비 대비 포장지 가격이 10%를 웃돌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는 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포장의 개념과 포장재의 성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보아도 그 관심도가 훨씬 떨어지고 있는데 단적으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플라스틱 상자의 경우만 해도 외국의 경우에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용폭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라며 한국단프라에이스(주)에서 개발한 도전성 플라스틱 골판지 상자의 예를 들며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했다.



▶ 압출형식의 제품 성형기

한국단프라이이스(주)에서 개발한 도전성 플라스틱 골판지 상자는 이 이사가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도전층이 전체에 흐르고 있어 대전방지효과와 정전기 제거 효과가 있고 더러움이나 먼지 등의 흡착을 방지하는 반영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제품은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며 내수, 내유, 내약품성이 우수해 반도체소자 제조공장, 컴퓨터·카세트테이프·비디오테이프공장, 복사기, 전자제품, 정밀부품 등의 제조공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일반 플라스틱 상자에 비해 단가가 높고 홍보 여건도 여의치 않아 유저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저희가 개발한 도전성 플라스틱 상자의 우수성에 대해 인식하는 분들도 단가면에서 주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품의 성능에 대한 인식이 완전치 않다는 점을 이용, 일부 업체에서 색상만 같게 제작한 유사제품을 저가에 공급, 저희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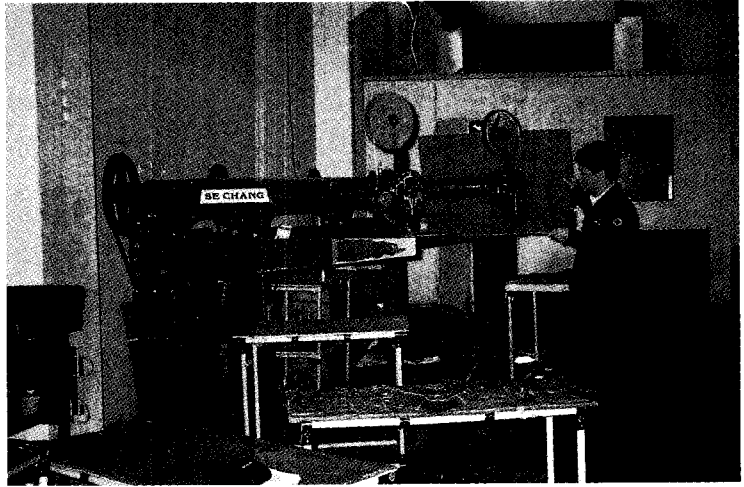
성 플라스틱 상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기도 합니다”라는 이 이사는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에는 업계 전체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아니겠느냐며 안타까운 반문을 덧붙였다.

환경과 연관지어 플라스틱 상자의 친화성을 생각해 볼 때 우선 재사용성을 들 수 있는데 종이 골판지 상자의 경우 회수 후 2회 정도의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 상자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12회정도, 실제로는 50회 이상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플라스틱 상자의 경우 4회정도 재사용할 경우 원가의 마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시책상으로도 박스를 회수할 수 있는 체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 포장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바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용 및 재사용률은 매우 미흡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손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는 이 이사의 말에 산업현장에서의 실무와 정부 정책상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업체의 실상을 볼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모든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한국단프라이이스(주)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개척을 서두르던 한국단프라이이스(주)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물류센터에 플라스틱 상자를 납품하는 방향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 유저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가공공장

국내 최대 규모인 신원에벤에셀 물류센터와 납품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단프라이이스(주)는 납품 초반, 종이 상자가 주를 이루던 물류센터에 플라스틱 상자도 포장한다는 개념을 도입시켜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신원에벤에셀 물류센터의 담당자와 여러 번에 걸친 연구 끝에 장기적으로 볼 때 플라스틱 상자가 더 용이하다는 판단을 내려 납품이 가능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물류센터의 시장성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신시장 개척과 동시에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들의 단합을 강조하는 한국단프라이이스(주)는 박배우 대표이사의 강단있는 경영을 중심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책임완수'라는 사훈을 지켜가며 제 2의 도약기를 이루어가고 있다.

“플라스틱류의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분해성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떻게 개발해 놓는다 해도 국내에서의 실용성에 대해 회의가 듭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친화성이나

제품의 우수성보다는 단가면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라는 이 이사의 말에서 포장업계를 포함한 우리나라 산업계의 미래는 산업역군들의 힘있는 어깨 뿐 아니라 현장의 의견이 수렴된 국가적 정책의 수립과 소비자인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어우러질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성화되어가는 이야기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답답함이 느껴졌다.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상자 생산의 활로를 열었고 현재 최대의 플라스틱 상자 생산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단프라이이스(주)는 전 직원의 가슴 속에는 업계를 선도한다는 자부심과 플라스틱 상자의 환경친화성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현실에 맞는 신기술 도입으로 시장성 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갖추어 탄탄한 21세기 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작금의 어려움을 딛고 발돋움을 거듭하고 있다. ☐

윤지은 기자